



"전북에 희망을, 청년에게 기회를" 김민석 국무총리, 새만금 현장간담회 개최

- 새만금 현장에서 지역 청년들에게 현대차 투자계획·정부 지원방안 설명
- 전북 청년들과 현장 소통, 지역에서 꿈을 실현하는 시대 만들 것

□ 김민석 국무총리는 6.19(금) 새만금 현지에서 전북 지역 대학생* 20여명과 현대차 및 정부 관계자**들과 함께 「전북 청년 새만금 현장 간담회」를 개최하였다.

* 군산대, 우석대, 원광대, 전북대, 전주대 등 5개교 학사~석·박사 과정생 22명

** 김윤덕 국토부장관, 문성요 새만금 청장, 현대차 신승규 부사장

- 이번 간담회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과 정부의 종합지원 계획을 지역 청년들에게 직접 설명하고, 새만금의 미래와 지역발전 방향에 대한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,
- 새만금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에서 현대차 그룹의 투자와 정부의 지원으로 변화 될 새만금의 미래 모습을 설명하고, 이에 대해 지역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.

□ 김민석 국무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“지역발전과 청년의 미래는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니며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의 발전도 지속 가능하다”고 강조하였다.

- 또한 “새만금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미래성장의 핵심 거점”이라며, “현대차의 투자는 새만금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
- 아울러, 현대차의 새만금 프로젝트는 지역학생들에게도 큰 기회임을 강조하고, “정부는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머무는 새만금을 만들기 위해 규제혁신, 인프라 확충, 정주여건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”이라며,

- “지역에서 배우고, 취업하고,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여 청년들이 굳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”고 말했다.
- 이에 대해 지역 청년들은 새만금 프로젝트에 대한 큰 기대와 포부를 밝히면서, 관심분야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제안을 쏟아냈으며,
 - 특히 ▲현대차 투자에 따른 지역인재 채용 계획 ▲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전망 ▲지역대학과 기업 간 산학협력 강화 ▲청년층의 지역정착을 위한 주거·문화 인프라 확충 ▲새만금의 중장기 개발방향 등에 대해 특히 높은 관심을 보였다.
- 김민석 국무총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
 - “현대차 투자의 당사자가 될 학생과 청년 여러분과의 대화를 하면서 정부의 책임감을 다시한번 느끼게 되었다”라고 언급하고,
 - “새만금의 미래가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고 강조하였다.
- 정부는 앞으로도 지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새만금이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대표 혁신성장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	책임자	과 장	이병억	(044-200-1903)
		담당자	사무관	장재범	(044-200-2544)
		담당자	사무관	김수현	(044-200-2543)
		담당자	사무관	손창균	(044-200-2540)